

팩트체크를 활용한 중학생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Media Literacy Education Targeting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Fact-checking Method

1차원고접수: 2023.04.09. 수정원고접수: 2023.06.02. 최종게재결정: 2023.06.19.

김혜경¹ · 김지원² · 어윤경³

¹공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²공주대학교 교육학과, 석사수료

³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Kim, Hyekyoung¹

Kim, Jiwon¹

Auy, Unkyoung¹

¹Dept. of Studies, Gong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일상생활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미래사회의 필수적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디어 이용 시간이 많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수요소인 팩트체크를 활용한 카드 뉴스 제작 교육사례를 중심으로 차세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팩트체크를 연계해 미디어 접근 능력, 증거 수집 및 분석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을 목표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충청지역 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을 조사하고 그중 5명을 선정하여 포커스 그룹 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팩트체크 카드 뉴스 제작에 기반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수집 능력과 비판적 분석 능력이 향상되었고, 미디어 언어를 통해 자신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교류하는 능동적인 참여자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향후 연구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장기적인 효과를 조사하고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미디어 리터러시, 팩트체크, 비판적 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Abstract As the media environment changes due to digital technology and the influence of media in everyday life grows, media literacy is drawing attention as an essential competency in the future society. Recently, the need for media literacy education has been emphasized for middle school students who spend a lot of time using media.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next-generation media literacy educ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media education using fact-check, an essential element of media literacy education. By linking media literacy education with fact-checking, an educational program was organized with the aim of media access, evidence collection and analysis, and critical understanding, and it was targeted at 50 middle school students in Chungcheong-do. We investigated media literacy perceptions, selected 5 of them, and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to collect and analyze data. Through media literacy education based on fact-check card news production, students' information collection and critical analysis skills have improved, and they have become active participants who freely express and exchange their thoughts through media languages. Future research is expected to investigate the long-term effects of media literacy education and develop regular education programs that can improve students' media literacy skills.

Keywords media literacy, fact checking, critical thinking, media literacy educ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디어로 소통하고 미디어를 통해 사회문화를 형성하는 청소년들은 미디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려

울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소셜 미디어, 인쇄 및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유비쿼터스 존재와 함께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우리의 일상은 미디어의 틀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디어는 디지털화되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미디어화시켰고, 수동적인 청중을 미디어와 직접

* 한국인간발달학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논문을 확장한 것임.

Corresponding to 어윤경 (Auy, Unkyoung)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Dept. of Studies, G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ayk8892@kongju.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상호작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능동적 참여자로 바뀌어 중재자 없이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듯 미디어에 수없이 많은 정보가 담겨 쏟아지고 있으며 우리 일상의 대부분이 미디어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에게 미디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이해력과 판단력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의사소통할 때 많이 사용되는 미디어는 세상을 보는 투명한 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각기 다르게 재현하거나 이미지들이 간접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Buckingham, 2004).

McLuhan(1999)이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말했듯이 지금 우리 사회는 미디어의 시대이고 미디어가 주는 메시지들로 넘쳐나고 있다. 미디어는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소통의 도구이다. 또한, 배운정(2020)은 미디어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성숙한 국가 시민으로서 또는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디어에 존재하는 메시지에 접근하여 이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하며, 미디어와 미디어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메시지를 스스로 생산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미디어는 직접적으로 사회에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사회 현상을 선택적으로 생산자에게서 재편집해 제시하여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함께 끼쳐 교육적 부분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디어는 이제 단지 콘텐츠에 담긴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만나고, 소통하는 수단이 되면서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 역량으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해지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media)’와 문자, 시각, 음성, 다중양식 텍스트를 분석하거나, 평가하여 이용하고 그러한 텍스트를 읽고 쓰는 능력(OECD, 2018)의 ‘리터러시(literacy)’의 합성어로 일상에서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고 변화하는 미디어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며, 미디어와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다. 즉, 미디어를 올바르게 생산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의 의미로 지식과 기술 같은 인지적 요인과 태도와 같은 정의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미디어 종류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되면서 단순히 미디어를 읽고 쓰는 개인의 미디어 인지 능력보다는 사회적·문화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식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과 미래 시민으로서의 행동을 포괄하는 역량으로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미디어에 접근, 분석·평가, 창조하는 능력(Ofcom, 2004)’에서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 수단을 기반으로 접근, 분석, 평가, 창조 그리고 행동하는 능력(NAMLE, 2018)’으로 확장하여 규정하고 있다. I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도구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중심으로 한 공학적 관점과 비판적 사고에 더욱 집중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미디어는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재구성되고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와 미디어 정보로 표현될 수 있는 자기표현 능력을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회공동체 연결망을 확보하고 책임과 권리, 참여와 협력 등 디지털 시민성 역량으로 강조하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판적 리터러시, 문화적 리터러시, 멀티 리터러시 등 리터러시에 대한 리터러시, 즉 메타 리터러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전경란, 2015). 미디어들이 융합되는 속도가 가속화될수록 미디어 리터러시의 메타적 성격은 더 많이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변화하지 않는 고정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기보다 하위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탄력적이고 유동적인 것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취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용어를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의 배경, 맥락을 파악하여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생각을 미디어로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미래의 교육에 관해 고민하는 학자들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가르치려는 교육이 아니라, 정보를 이해하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의 차이를 식별하고, 수많은 정보 조각들을 조합해서 세상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김혜정, 2020).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미디어 리터러시이다. 특히, 이해와 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사회적 삶에 필요한 기술 활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정현선, 김아미, 박유미, 전경란, 이지선, 2016). 이는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이 많은 정보를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소통하느냐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메시지의 바른 정보의 소통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이다. 물론, 정보의 수용자만이 아닌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자로서 역할과 책임에 대해 교육적 경험과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일상적인 정보 습득과 사회적 의사소통 및 문화 향유에 깊숙이 자리한 미디어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매개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가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것이다(정현선, 2006). 특히 전통적 미디어인 책이나 TV만이 아닌 유튜브, 포털사이트, 인터넷을 기반 스마트폰 앱, IT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창의적 이해와 미디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은 이제,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배워야 하는 리터러시 영역이 아니라, 학교 교육안에서 특히 교과안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핵심역량이며 교과교육 내용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적 능력이자 교육의 한 요소로서 단계적인 배움의 과정이 필요한 능력임을 주지해야 한다. 그러한 배움의 과정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이상적 장면이 있는가 하면 분절적이고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장면도 있다. 좋은 토양 없이는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처럼 이러한 교육적 장면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범주 안에서보다 더 체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위계화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교육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팩트체크(fact check)’란 영어 뜻 그대로 어떤 메시지의 정보가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인지에 대하여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팩트체크는 선거 기간의 정치 분야 기사와 주장에 대한 검증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이후 경제 및 사회 전반으로 그 분야가 확대되었다. ‘팩트체크 저널리즘(fact-check journalism)’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저널리즘도 등장하였는데, 이는 언론이 어떤 사안,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올바르게 전달했는가? 라는 관점을 넘어서 그 정보 메시지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전달한 그 정보가 진실한 것인가를 검증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정의가 확실하지 못하고 모호하다 보니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팩트체크 과정에서도 명확한 기준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대학교 SNU 팩트체크에 등록된 기사들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사 중 대부분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나 원문 출처 URL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아 팩트체크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았다(오세욱, 황구현, 2018).

팩트체크의 목적은 허위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Spivak, 2010). 이를 위해 주로 허위정보를 먼저 제시하고 이 정보에 대한 근거를 찾아 정보를 제시하는 구조가 사용되어왔다. 그런데 허위정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수용자를 허위정보에 노출하게 되고 의도치 않게 수용자가 허위지각을 형성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허위지각(misperception)이란, 사실이 아닌 정보에 노출됨으로써 생기는 잘못된 신념 또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특정 정보를 접하면 이를 모두 사실로 수용하는 진실편향적(truth bias) 경향이 있어 무방비 상태에서 허위정보에 노출이 되면 이에 대한 허위지각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허위지각은 이후 제시되는 정확한 근거 정보에 저항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존의 가짜뉴스 내용을 사실 근거를 들어 정정하는 팩트체크 결과를 접해도 허위지각된 수용자는 이를 선

택적으로 인식·처리·해석하며 처음의 허위인식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근거를 들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정보에 대한 사전 경고가 영향을 미치는 기사의 범위가 허위정보의 영역을 넘어 팩트체크 결과까지 포함된다면, 오히려 사전 경고로 인해 이후 접하게 되는 팩트체크 결과까지 회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김은정, 2021). 따라서, 팩트체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거를 찾아 정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함께 언급하는 허위정보로 인한 허위지각 형성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 속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 그대로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팩트체크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팩트체크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달리 가짜뉴스를 사안별로 접근하여 대응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Amazeen, 2015). 최근에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에서도 정치인 발언이나 허위조작정보의 진위를 가리는 자체 기사·콘텐츠를 만들기도 한다. 초기의 팩트체크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사실 검증에 치우쳐 있었지만, 현재는 특정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정보의 진위여부를 밝히는 일종의 저널리즘으로 여겨진다(Grave & Glaisyer, 2012). 이는 팩트체크가 허위정보의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필요한 교육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역량은 공감 역량, 의사결정 역량, 책임 있는 참여역량, 올바른 정보 검색과 선택하는 역량인데, 가짜뉴스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며, 서로 불신을 갖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회에 참여하게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짜뉴스는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역량을 침해할 위험도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에 좌우되지 않고 그것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 핵심역량의 자질을 회복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해지고 있는데, 팩트체크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하는 정보에 대하여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중학생들(이경

화, 2002)에게 정보변별행동과 전략적 행동을 습득하기 위에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넓은 의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팩트체크를 허위정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검증과정을 통해 진실 여부를 제기하는 것과 메시지 정보 생산에 대한 책임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의하였다.

교육부는 2019년 7월에 발표한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에서 그동안 분산되어 진행되어 오던 미디어 교육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교과와 연계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에 중점을 둔 자료를 개발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실제로 미디어 교육 수업 시간에 직접 제작해 구성원과 공유해 볼 수 있도록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2019). 또한, 2020년 교육부는 「초등 국어 교과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만나 원격 수업 지원한다」라는 보도 자료에서 기존의 교과서가 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다양한 방향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교과와 연계하여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현장에 보급하는데, 미디어와 연계된 교과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누리는 미디어 세상’이라는 미디어 콘텐츠 안에 ‘거짓 정보와 마녀사냥 바로 잡기’는 팩트체크 관련 내용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유아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역량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로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미디어 환경변화 속에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김경희 등, 2018), 연령집단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제시한 연구(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201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하여 발전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과 이론을 밝히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기초 설계와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조남민, 2018), 한국어 교육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연구와 뉴스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모형을 제시한 연구(김재희, 이은희, 2019), 편향적 미디어의 생산과 유통에 뉴스소비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비판적 소비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김영석, 2021), 뉴미디어 리터러시가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을 분석하여 검증한 연구(이병관, 2022),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뉴스 노출 집단의 미디어 이용과 뉴스 인식 그리고 리터러시 관계를 검증한 연구(김형지 등, 2020), 미디어 교육은 허위정보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미디어 콘텐츠를 정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팩트체크를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손예희, 2018) 등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 방안들을 여러 방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이전 연구들은 탄탄한 교육 모델을 토대로 수업모형을 구축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를 간과하고 있어 실증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유아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로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핵심역량 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와 관계가 깊은 자기표현, 참여성, 규범준수, 공공성, 관용성, 비판적 사고, 기술적 활용 등을 적용한 미디어 교육사례를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고려하여 팩트체크를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중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과 역량을 실천적 활동을 통해 살펴보고자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중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과 역량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팩트체크를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중학생들의 경험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미디어패널조사(2020)에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많은 시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팩트체크를 활용한 미디어 세상 엿보기’에 참여한 충청지역 M중학교 1학년 학생 50명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5명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2022년 3월 ~ 7월까지 7차시 진행된 ‘팩트체크를 활용한 미디어 세상 엿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들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의 기본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기본정보

이름	학년(나이)	성별	사용하는 미디어
연구참여자A	중1(14)	여	스마트폰
연구참여자B	중1(14)	남	태블릿 PC
연구참여자C	중1(14)	남	스마트폰
연구참여자D	중1(14)	여	스마트폰
연구참여자E	중1(14)	여	스마트폰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은 교육 참여 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5점 척도의 자기 보고식 설문이며,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요소를 바탕으로 설계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실천적 활동에서의 주관적 경험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수집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포커스 그룹 면접 및 참여 관찰 기록지, 활동지 자료, 교육 참여 소감문 등을 활용하였다. 특정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과 경험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포커스 그룹 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비대면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

으며 소요 시간은 40 ~ 60분이었다. 인터뷰 내용을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와 질문지 문항은 표 2와 같다.

자료 분석은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팩트체크로 미디어 세상엿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주관적인 경험과 변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연구 방법(Yin, 2009)을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자료수집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자료수집과 분석의 시점은 프로그램 종료 후 1주일 내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억이 더욱 선명하고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더욱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먼저, 작성된 FGI 내용을 녹음한 뒤 전사한 자료를 참고하여 핵심 단어와 문장들 중심으로 연구 주제에 부합한 내용인지 확인하고, 빠진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번역하고 기록하였다. 또한, 관점의 다각화를 위해 연구자들 간에 서로 검증

하였으며, 전문가 자문을 얻어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려 노력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전제되는 지식과 편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기록된 응답 내용의 실제적 맥락에 집중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과 결론 도출 과정에서 연구자 간 타당도 확인을 거쳐 전문가 자문과 선행연구 자료와 비교하여 자료 분석 및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중요한 자료에 이름을 붙이고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개방코딩(opencoding)을 과정을 거쳤다. 세 번째 단계는 비교분석 작업을 통해 주제별로 기능적 단계와 정서적 단계로 나누는 작업을 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이용해 분류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3개의 영역에서 6개의 범주와 12개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에 담긴 정보 메시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읽기(reading)’와 미디어 메시지를 생산하는 ‘쓰기(writing)’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고

표 2. 면담 주요 설문지와 질문지

질문	문항
설문지	나는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말을 이해한다.
	나는 뉴스, 신문기사, 인터넷 게시물 등의 미디어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나는 미디어 정보가 사실인지 파악하기 위해 정보유형, 정보제공자를 확인한다.
	나는 SNS 등에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다.
	나는 관심 있는 글이나 영상, 정보를 SNS, 인터넷 등에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위 질문에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로 답한 경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적어주세요.
	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잘 알고 있다.
	나는 팩트체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나는 팩트체크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
질문지	나는 허위정보와 사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나는 허위정보 문제 해결 위해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개방적인 태도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 생각을 표현할 수 있나요?
	나는 미디어를 사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나요?
	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미디어 사용자와 협업하고 서로 상호 작용했던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는 필요한 정보를 검증하여 정확하게 찾을 수 있나요?
	팩트체크를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나요?
	팩트체크를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한 소감을 써주세요.

하였다(김아미, 2015). 이는 미디어에 담긴 메시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메시지의 글을 생산하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과정을 시사한다. 또한 Livingston(2008)에서는 학습자들의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창조적이고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통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비판적 사고능력은 미디어에 담긴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어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분석적으로 평가하여 수용하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말하며, 창조적인 능력은 글이나 말의 형태를 자신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이처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적은 미디어와 미디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정보나 메시지를 생산하여,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과 원활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미디어의 소비자로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메시지 정보에 정확하게 근거한 균형 있는 선택과 판단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후 그들 스스로 효율적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실행한 프로그램 수업모형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팩트체크를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이론적 배경에 기반하였다. 특히, 최근 뉴스에서는 ‘페이크뉴스’와 ‘악의적 댓글’ 등이 많아지면서 누구나 팩트체크 능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중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미디어 소통에서 참여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미디어 정보를 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실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팩트체크 카드 뉴스 제작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팩트체크에 대한 이해도와 비판적인 시각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모형을 설계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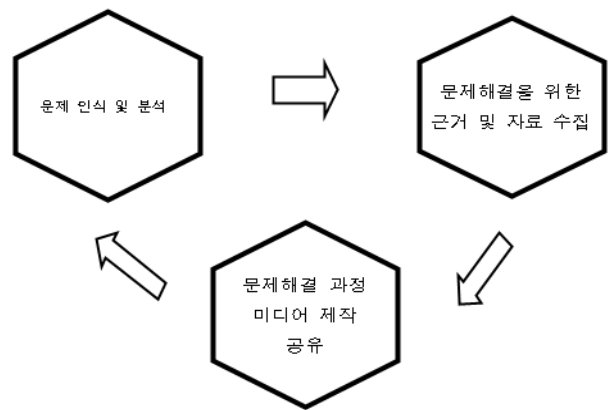


그림 1. 팩트체크 미디어 교육 수업모형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수업모형 타당화를 위해 교육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 대상자 및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였다. 프로그램 수업모형 첫 번째 단계는 준비 단계인 메시지에 접근하는 과정으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와 관련 메시지에 접근해 보는 활동 단계이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사회 메시지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여, 이와 관계된 정보 메시지에 접근하는 것이, 내가 속해있는 사회와 소통하기 시작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미디어 정보를 조절하는 통제 능력과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할 줄 아는 기술적 역량이 함께 갖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배운정, 2020). 다음으로 수행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와 자료를 수집하여 생산자로서 문제에 대한 정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하는 단계이다. 미디어 메시지 중에서 어떤 메시지를 선택하여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거둬들이는 것인지를 결정하면서 어떠한 미디어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단계를 통해 사회 구성원과 소통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재구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제작과 공유를 통해 스스로 평가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소통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다시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고 구성할 수 있다.

미디어는 사회공동체와 소통하는 의사소통의 도구로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요구되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이러한 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분별력으로 사실적 대안을 찾아서 해석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시각을 기르는 교육이므로, 스스로 미디어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미디어 메시지를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실천적 경험이 중요하다. 이에 다양한 메시지를 스스로 탐색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은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정보 메시지를 분석하는 분별력으로 미디어 정보의 관점을 파악하고, 팩트체크 역량과 태도를 함양하여 이

를 통해 사회공동체의 구성으로써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보며 능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각 차시별로 학습 주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목표 및 내용을 반영하여 실천적 경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특히 이 프로그램은 팩트체크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여, 허위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생산에 대한 책임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팩트체크의 목적은 허위정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검증과정을 통해 메시지 정보 생산에 대한 책임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딥페이크 등 기술적으로 진화하는 허위정보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 및 습득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하는 것은 넘쳐나는 미디어 속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스스로 정보에 대한

표 3. 팩트체크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차시	주제	교육목표	교육내용
1	미디어 환경변화 허위조작정보의 범람	미디어 환경변화 이해 및 허위정보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다.	COVID-19와 인포데믹 디지털사회 미디어 환경변화 미디어 프로슈머의 시대 허위조작정보의 범람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
2	허위정보의 개념과 피해	허위정보를 대하는 자신을 평가하고 대처 요령을 말할 수 있다.	가짜뉴스의 등장 해외와 한국의 가짜뉴스 비교 가짜뉴스 or 허위정보 허위정보의 유형과 특징 허위정보를 쉽게 믿는 심리적 요인 허위정보 걸러내는 체크리스트 우선순위 정하기
3	허위정보와 신기술의 진화	딥페이크와 기술의 진화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위험성을 말할 수 있다.	미디어 속 조작된 정보의 다양한 사례 팩트와 페이크. 사진과 영상 조작 기술 허위정보와 기술의 진화 무엇으로 어떻게 막을까?
4	뉴스 이용과 팩트체크 저널리즘	팩트체크 기사의 특징을 파악하고 허위정보에 활용할 수 있다. 시민 팩트체킹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뉴스 이용 형태와 뉴스의 본질적 가치 확인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시작과 현재 뉴스의 팩트체크 필요성과 일상화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장단점과 한계 시민의 역할
5	허위정보 대응 방안 기획	팩트체크의 내용과 도구를 활용하여 결과를 평가하고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 방법을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나의 팩트체크 공감도 온도계로 표시 팩트체크 과정 이해 팩트체크 대상 선정과 계획 주제를 선택한 기획 의도와 기대효과 주제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수집 방법 수립 계획안 공유
6	팩트체크 미디어 제작	문제해결 근거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메시지 미디어 제작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팩트체크 카드 뉴스 기획 생산자로 메시지 정보를 미디어로 제작 사회구성원과 합리적 소통 올바른 정보 전달
7	허위정보, 어떻게 막을까?	디지털 사회의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해 여과 없는 허위정보 허위정보, 누구의 책임인가? 허위정보를 어떻게 막을까? 시민활동 디지털 사회, 정보를 대하는 자세 SNS 업로드

문제의식과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학습자에게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학생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교사와 협업하여 비교과 과정으로 연구자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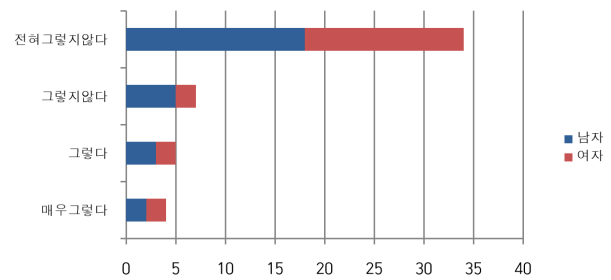


그림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인식

III. 결과 및 해석

1.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

청소년에게 디지털 미디어는 사회화와 정체성을 구현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이다.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을 우리는 미디어로 소통하는 ‘Z세대’라고 부른다. 본 연구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중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을 파악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중학생들의 미디어 활용 패턴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미디어 교육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팩트체크를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한 중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을 탐색하고자 미디어 교육에 관한 참여자들의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여학생 22명(44%), 남학생 28명(56%)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잘 알고 있다.’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남학생 64%, 여학생 73%가 ‘전혀 그렇지 않다’에 남학생 18%, 여학생 9%가, ‘그렇다’에 남학생 11%, 여학생 9%가, 남학생 7%, 여학생 9%가 ‘매우 그렇다’에 응답했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는 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은 그림 2와 같다.

팩트체크를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기에 팩트체크를 중심에 두고 설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요소를 토대로 한 5점 척도의 자기 보고식 설문 결과, 연구참여자의 팩트체크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 수준은 보통에서 보통 이하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팩트체크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 기회와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관심도나 참여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인식 수준에 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팩트체크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

질문	평균
나는 팩트체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87
나는 팩트체크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	2.44
나는 허위정보와 사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21
나는 허위정보 문제 해결 위해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24
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65

먼저 팩트체크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에서 85%의 학생들이 “팩트체크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다.”라고 답했고, 82%의 학생들이 “팩트체크는 나의 삶에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라고 답했다. 학생들 대부분 수없이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현재 사회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거짓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어 우리들의 삶에서 팩트체크는 꼭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양한 곳에서 접하고 있었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팩트체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청소년들

은 ‘매우 자주 한다’는 응답자가 6%, ‘하지 않는다’는 68%로 나타났다. 이는 필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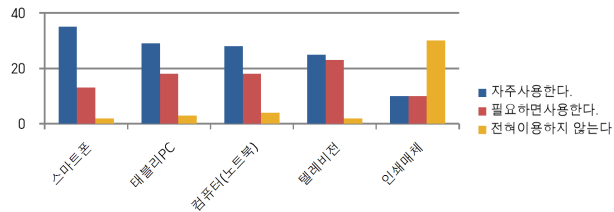


그림 3. 자주 사용하는 미디어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정보를 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 매체는 그림 3과 같았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텔레비전보다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책 등 인쇄된 매체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에서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기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또는 패드 및 태블릿 PC를 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매체의 편리성이나 접근성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모바일이 우리의 일상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미디어 교육이 필요함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

2.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미디어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팩트체크를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참여한 학생들은 무의식적인 정보수집이 아닌, 비판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보를 선택했고, 적절성을 검증하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선택하고 받아들였던 것에 비해 팩트체크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을 통해 정보나 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할 때 정보가 올바른지 합리적으로 의식하고 내용의 적절

성에 대해 비판적 사고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내가 찾은 정보가 올바른지 검증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검증하는 자료는 사실인가? 꼬리를 무는 의심이 생겼다.”, “이 정보를 공유해도 되는지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등 비판적 이해 중심의 ‘정보 검색과 선택’, ‘비판적 분석과 평가’, ‘책임 있는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정보를 소비하는 것에 있어서 무의식적이었지만, 이제는 검증과정의 어려움을 깨닫고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고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는 해당 정보의 적절성을 고려하는 습관이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보고, 그 정보가 자신이 찾는 정보에 적절한지를 점검하고, 이러한 태도를 습관화하도록 한 경험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하는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태도와 역량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학생들은 이를 습관화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 결과물 시사회를 통해 제작한 작품을 공유하며 친구들과 소통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적인 사회적, 문화적 참여의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경험

팩트체크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 비판적 사고 필요성, 사회적 공유 경험에 경험과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경험을 세 영역으로 분류하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6개의 범주와 12개의 개념으로 표 5와 같이 정리되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미디어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표 5. 팩트체크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의미

영역	범주	개념
미디어 환경의 변화	미디어 접근	정보접근 방법 안전한 미디어 이용
	미디어 이해	호기심으로 선택 다양한 미디어 도구 활용
비판적 사고 필요성	비판적 이해력	메시지 제대로 읽는 능력 분별력 있는 정보 판단 능력
	허위정보 대응	조작된 메시지 정확한 근거 제시
사회적 공유 경험	창의적 제작	생산자로서 책임감 문제해결을 위한 재구성
	사회적 소통	제작하여 공유 친구들의 반응과 피드백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팩트체크를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참여한 학생들은 무의식적인 정보수집이 아닌, 비판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보를 선택했고, 적절성을 검증하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선택하고 받아들였던 것에 비해 팩트체크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을 통해 정보나 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할 때 정보가 올바른지 합리적으로 의식하고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비판적 사고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내가 찾은 정보가 올바른지 검증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검증하는 자료는 사실인가? 꼬리를 무는 의심이 생겼다.”, “이 정보를 공유해도 되는지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등 비판적 이해 중심의 ‘정보 검색과 선택’, ‘비판적 분석과 평가’, ‘책임 있는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정보를 소비하는 것에 있어서 무의식적이었지만, 이제는 검증과정의 어려움을 깨닫고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고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는 해당 정보의 적절성을 고려하는 습관이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보고, 그 정보가 자신이 찾는 정보에 적절한지를 점검하고, 이러한 태도를 습관화하도록 한 경험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하는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태도

와 역량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학생들은 이를 습관화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 결과물 시사회를 통해 제작한 작품을 공유하며 친구들과 소통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적인 사회적, 문화적 참여의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1) 미디어 환경의 변화

중학생들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지만, 그 변화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가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참여자들은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미디어가 주는 정보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미디어에 접근하고 있으며, 미디어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미디어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미디어 접근

연구참여자들은 미디어가 보여주는 것만을 메시지로 읽고 해석하였다고 한다. 정보를 찾을 때 제목이 재미있거나 이미지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업을 통해 프레임 뒤에 있는 진짜 그림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중학생들이 정보를 접근하고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이에 대해 성찰적인 경험을 한 결과,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자가 이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들은 이전에는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자신들이 편견이나 오류를 찾아내기 어려웠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과 팩트체크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은 중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디어 사용 습관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를 찾기보다는 그냥 제목이 재미있는 것, 이미지가 예쁜 것이나 웃기는 것을 선택해서 보고 재미있으면 친구에게 공유했던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C)

“정보를 찾아야 할 때 귀찮아서 맨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했어요.”(연구참여자 A)

(2) 미디어 이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소비하는 콘텐츠를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보를 확인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유해한 콘텐츠인지 확인하지 않고 호기심으로 정보를 검색했던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 연구 대상자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자주 이용하는 중학생들이다. 이들은 주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여러 콘텐츠를 검색하고 이용한다. 그러나 이들이 이용하는 콘텐츠가 어디에서 제공되었는지,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서들이 오해의 소지나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디지털 발자국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들은 안전한 미디어 사용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콘텐츠를 검색할 때 출처를 확인하고 콘텐츠가 안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검사할 것이다. 그래서 대상자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허위정보가 많을 줄 몰랐어요. 이젠 나도 모르게 자꾸 의심하고 같은 내용 몇 개를 찾아서 비교해요.”(연구참여자 B)

“유튜브를 볼때도 ‘이것 딥페이스 아니야’ 의심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영상인지 확인하게 되었어요.”(연구참여자 D)

2) 비판적 사고 필요성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미디어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개인이 뉴스, 온라인 콘텐츠 및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같은 소스에서 얻은 정보의 신뢰성, 신뢰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여, 정확하고 편향되지 않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개인이 미디어를 분별력 있는 소비자로 만들어, 미디어에서 퍼지는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 선전 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육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비판적 이해력

비판적 사고는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능력에 필수적이며, 이는 다양한 관점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메시지를 제대로 읽고 분별력 있

는 정보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방법과 함께 정보검증과 분석 능력을 함께 강화함으로써, 더 나은 미디어 소비자와 프로듀서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팩트체크 카드 뉴스를 제작하면서 정보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중략)..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읽어야 하는데 이 생각이 없으면 허위정보에 자꾸 빠졌어요.”(연구참여자 E)

“뉴스나 정보를 볼 때 내 생각을 ‘아 그렇구나’ 하고 정보에 맞추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짜뉴스가 진짜 많았는데..(중략)...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없으며 확증편향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A)

(2) 허위정보 대응

미디어 리터러시는 개인에게 비판적 사고 기술, 사실 확인 능력, 미디어 기술에 대한 이해, 편견에 대한 인식,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의식을 갖추게 하여 잘못된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정보에 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허위정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개인의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을 선진화시키며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찾은 근거자료로 정보를 조작된 메시지를 검증하여 진실인지, 거짓인지, 대체로 진실인지 판별하는 것이 재미있었어요.”(연구참여자 E)

“가짜뉴스 감별 체크리스트 이젠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돼요. 허위정보인지 금방 알 수 있

어요. 이미지만 보고도 뉘페이크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연구참여자 C)

3) 사회적 공유 경험

미디어 리터러시는 대중을 기만하거나 조작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허위정보를 다루고 대응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다. 출처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확실적인 증거를 찾고,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출처의 정보를 상호 교차 비교하는 활동인 팩트체크를 카드 뉴스 제작 활동을 통하여 사실 확인을 촉진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여 판단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창의적 제작

연구참여자들은 팩트체크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듀서로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을 뒷받침할 자료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생산자로서 책임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콘텐츠 구성능력이 분석되었다.

“내가 만든 카드 뉴스에 거짓이나 오류가 있으면 친구들이 찾은 정보까지 허위정보로 만들 수 있으니깐 정확한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연구참여자 A)

“예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았는데..(중략).. 국가통계포털 코시스, 빅카인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검색하고 찾아서 카드 뉴스 만들 수 있어요.”(연구참여자 B)

(2) 사회적 소통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는 소통과 문화, 정보 소비를 형성하며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생성을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미디어에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활발하게 제작 참여를 서로

유도하며 적극적인 토론과 발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대 사회에 미디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미디어 제작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긍정적인 소통과 자신감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자연스럽게 함양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콘텐츠 제작을 위해 근거자료 수집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향상되었고, 공유를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사회적 소통력이 향상되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의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팩트체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들으면서 나는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거짓뉴스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정보를 사실인지 검증하는 과정에서 바로 읽고 생각을 전달하며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연구참여자 E)

“‘내가 적은 기사가 중립적인가?’ 팩트체크 기사를 업로드하는 마지막까지도 고쳤던 부분이었어요. 혹시라도 내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검토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묻고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으며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배웠어요.”(연구참여자 A)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허위정보와 거짓 뉴스라는 걸을 알고 놀라웠다.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진실을 말하는가? 사실인가? 검증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친구들이 내가 만든 카드뉴스를 검증하고 ‘사실이다’라고 인정해 줄 때 뿌듯했어요.”(연구참여자 D)

IV. 논의 및 결론

현재 청소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 불리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 모든 디지털 시대의 언어를 읽고 쓰는 능력이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메시지를 표현하던 언어와 정보가 확장됨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도 다양해졌으며 더 이상 단순한 정보 매체 미디어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박기목,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사례 중 팩트체크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중학생들은 사회공동체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실천적 활동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과 역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팩트체크를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중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미디어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이며, 더욱 체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변숙자(2021)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용복(2020)은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반영한 체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육 실천적인 측면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과 디지털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평가 도구와 참여적인 교육 방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해야 함을 시사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청소년들이 기술의 발달로 급변하는 미디어 시대에서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가 전하고자 하는 미디어 메시지를 제대로 읽고, 미디어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한다(현영섭, 2019). 이를 통해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를 위한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함의하고자 진행한 팩트체크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에서 중학생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였고 수많은 정보에서 자신이 검증하고자 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탐색하기 위해서 팩트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조희연, 2020)는 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미디어 콘텐츠에 기획 단계부터 제작까지 적극 참여할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 역량 증진에도 기여한다고 하였다(박윤미, 나은영, 2023).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인 미디어 제작 활동에서 소통을 위한 다양한 표현과 공동체 안에서 합리적 의사소통으로 미디어를 제작하면서 협력의 경험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파악하였다. 청소년들은 미디어 언어로 표현하고 미디어를 생산하는 전 과정에 적극적 참여하며, 미디어를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기본적인 미디어 기술을 익히고 활용하여 미디어 영상 언어로 자신 생각과 정보를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좀 더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 사회적 소통능력의 향상에 있다(충북교육정책연구소, 2020). 사회적 소통능력은 다양한 미디어에 담긴 메시지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수용을 기반으로 자기화된 잘 드러나지 않는 메시지를

올바르게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소통능력을 향상하는 것 또한 사회 구성원과의 실질적인 상호작용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사회적 소통을 강조한 미디어 리터러시 과정에 관한 수업 계획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제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역량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사례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사례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어 표준화하여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미래사회 역량으로 중요시되고 있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연구와 청소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문제는 본 연구의 후속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9).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0). 초등 국어 교과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만나원격 수업 지원한다. 세종: 교육부.
- 김경희, 이숙정, 김광재, 정일권, 박주연, 심재웅, 최세정, 전경란 (2018).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파주: 한울아카데미.
- 김아미 (201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여라 (2020). 국회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현황 및 쟁점. NARS 현안분석, 144, 1-22.
- 김영석 (2021). 뉴스비평 교육이 사회과 예비교사들의 뉴스 미디어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교육연구, 28(4), 47-62. <https://doi.org/10.37409/RSSE.28.4.47>
- 김은정 (2021). 팩트체크가 정보의 사실성 인식 및 공유 의도에 미치는 효과: 사전 경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희, 이은희 (2019).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리터러시학회, 10(3), 591-620.

- <https://doi.org/10.37736/kjlr.2019.06.10.3.591>
- 김혜정 (2020). 21세기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교양기초 교육으로서의 데이터 리터러시 (Data Literacy) 분석. *교양교육연구*, 14(6), 147-159.
- <https://doi.org/10.46392/kjge.2020.14.6.147>
- 김형지, 정은령, 김은미, 양소은, 이재우, 강민지 (2020).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뉴스 노출 집단의 미디어 이용과 뉴스 인식, 그리고 리터러시 관계. *한국언론정보학보*, 101, 231-267.
- <https://doi.org/10.46407/kjci.2020.06.101.231>
- 박기목 (2018). <SNU 팩트체크>를 활용한 뉴스 팩트체크: 미디어 리터러시 가능성에 관하여. *사이버교육연구*, 12(1), 15-22.
- 박선미, 정민승 (2020). 미디어 활동에 참여한 성인중기 학습자의 민주적 시민성과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평생 학습사회*, 16(3), 31-62.
- <https://doi.org/10.26857/JLLS.2020.8.16.3.31>
- 박윤미, 나은영 (2023). 핵심역량 중심의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 구성 및 효과: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7(2), 284-322.
- <https://doi.org/10.20879/kjics.2023.67.2.008>
- 배윤정 (2020). 미디어 분석과 비평적 글쓰기를 활용한 대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6), 127-147.
-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6.127>
- 변숙자 (2021). 초·중·고 학생의 미디어 이용 양상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인식 분석. *리터러시연구*, 12(3), 89-121.
- 손예희 (2018). 뉴스 매체언어의 교육 내용 연구. *중등교육연구*, 66(1), 147-171.
-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2012).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인 검증. *한국방송학보*, 26(6), 129-176.
- 오세욱, 황구현 (2018). 팩트의 형식적 구성 요건에 대한 탐색적 연구: SNU FactCheck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언. *언론정보연구*, 55(4), 54-98.
- <https://doi.org/10.22174/jcr.2018.55.4.54>
- 이경화 (2003). 건전한 온라인 이용 습관 형성을 위한 초등교육의 방향. *인간발달연구*, 10(1), 57-72.
- 이병관 (2022). 뉴미디어 리터러시가 뉴스 팩트체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성의 조절효과와 가짜뉴스 태도 및 사실확인 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PR연구*, 25(4), 31-56.
- <https://doi.org/10.15814/jpr.2021.25.4.31>
- 이하나, 황유리, 정세훈 (2021). 미디어 이용자의 정보 검색과 공유 행동에 관한 연구 성격 특성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할. *한국언론학보*, 65(1), 236-269.
- <https://doi.org/10.20879/kjics.2021.65.1.23>
- 전경란 (2015).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완규 (2017). EU 28개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현황 보고서. 다독다독 미디어리터러시.
- 정용복 (2020).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인식과 정책 방안 연구: 제주지역 학교와 사회 미디어교육 관계자 심층 인터뷰. *한국소통학보*, 19(3), 51-86.
- 정현선 (2006). ‘언어·문화·소통 기술’의 관점에서 본 미디어 리터러시의 고찰. *한국학연구*, 25, 71-101.
- 정현선, 김아미, 박유미, 전경란, 이지선 (2016). 핵심역량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 체계화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1), 211-238.
- <https://doi.org/10.22251/jlcci.2016.16.11.211>
- 조남민 (2018). 비판적 인지와 자기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12(6), 195-215.
- 조희연 (2020). 서울 학생 미디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지향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0(11), 71-76.
- 충북교육청정책연구소 (2020).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 2020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정책개발연구영역 보고서.
- 현영섭 (2019). 성인학습자의 비판적 사고기능 및 비판적 사고성향과 가짜뉴스 팩트체크 및 가짜뉴스 식별의 관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연구논총*, 40(2), 5-39.
- <https://doi.org/10.18612/cnujes.2019.40.3.5>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21세기 핵심역량 보고서.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Amazeen, M. A. (2015). Revisiting the epistemology of fact-checking. *Critical Review*, 27(1), 1-22.
- Buckingham, D. (2004). 미디어교육: 학습, 리터러시, 그리고 현대문화. 기선정, 김아미 (역). 경기: 제이앤북스. (원본 발간일, 2003)
- Graves, L., & Glaisyer, T. (2012). *The fact-checking universe in Spring 2012*. Washington, DC: New America Foundation.
- Livingston, S. (2008). Taking the kids on a world tour of news: A content analysis of the coverage and framing of global news events in time for kids magazin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ducation*, 23(2), 39-48.
- McLuhan, M. (1999). 미디어의 이해. 박정규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원본 발간일, 1994)
- NAMLE (National Association for Media Literacy Education). (2018). The Core Principles of Media Literacy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Retrieved Mar 5, 2023, from <https://namle.net/publications/core-principles>
- OECD (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Paris: OECD Publishing.
- <https://doi.org/10.1787/9789264273923-en>

- Ofcom(Office of Communication). (2004).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medialiteracy: A statement*. London: Ofcom.
- Spivak, C. (2010). The fact-checking explosion: In a bitter political landscape marked by rampant allegations of questionable credibility, more and more news outlets are launching truth-squad operations. *American Journalism Review*, 32(4), 38-44.
-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